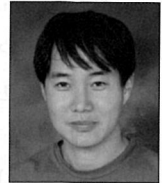


수명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최종욱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부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 애완동물을 사더라도 그들의 본래 수명에 아랑곳없이 마치 평생 자기와 살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애완동물의 수명은 겨우 15년 안팎일뿐이고 다른 애완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다. 햄스터나 기니픽 같은 경우 체 1~2년을 살기도 버겁다. 그러나 의외로 새나 파충류는 예상을 넘어서 훨씬 오래 산다. 닭의 경우 천수를 누릴 수만 있다면 30년이고 앵무새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사는 것도 있다. 이구아나는 15년 정도.

아마 사람들이 동물들 죽음에 둔감한 것은 많은 죽음을 보지 않았거나 외면해 왔기 때문이리라. 대신 사람들의 죽음은 매일 대하고 자신의 일이나 그만큼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외면현상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불행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죽음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오래 사는 가장 간단한 비결이다.

인간의 수명은 평균 80세 정도이고, 요즘은 100세를 넘어가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인간의 수명을 120세 이상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성서의 창세기 편에 보면 무드셀라나 노아 등은 몇 백년씩 살았다고 아예 족보로 적혀져있다. 지금의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성서를 진실이라 믿는 학자들은, 스트레스 없는 평화로운 에덴 같은 환경에서 산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동양의 신화에서도, 무릉도원에 들어가 잠깐 신선놀음을 본 나무꾼이 돌아와 보니 몇 백년이 흘렀더라 하는 이야기도 흔히 전해진다.

사람들이 수명늘리기에 몰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동물들은 50년을 넘게 사는 경우가 드물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수명이 짧을까? 앞서 '스트레스설'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초



식동물이 대개 20년을 못 넘기는 것은 항상 생명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사슴의 경우는 약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급성 위장출혈로 쉽게 죽어버린다. 키 큰 기린도 체 20년의 나이를 넘지 못한다. 호랑이, 사자, 늑대 같은 육식동물 역시 수명이 20년 남짓인 것은 사냥을 해야 먹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치열한 삶을 사는 게 운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동물원에서 그 동물들이 잘 적응만 하면 보통 수명이 2배 이상으로 연장된다.

잡식동물인 곰의 경우는 30년 이상, 유인원인 침팬지도 45년 정도를 산다. 이들은 육. 초식이기보다는 잡식성에 가까워 먹이 선택의 폭이 넓고, 대개 격리된 환경 속에서 홀로 또는 가족단위로 유유자적하게 사는 종족들이다. 코끼리의 수명은 거의 인간의 수명을 상회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늙음도 잠깐뿐이다. 그러므로 인간보다 훨씬 '웰 다잉(well-dying)' 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초식동물이지만 코끼리나 하마 코뿔소 등이 수명이 긴 이유는 거의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파충류인 악어나 큰 뱀 같은 경우도 꽤 오래 사는 데 이들은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을 땅속에서 버티기도 한다. 이들의 수명은 대개 50년 이상이다. 파충류의 대표주자는 물론 거북이다. 그중에서 코

끼리 육지거북의 경우는 200년 이상으로 기록된 적도 있다. 거의 사람의 3대를 거쳐 사는 셈이다. 거북의 장수이유는 바로 '느림의 미학(slow life)'에 있다.

고래 역시 오래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요즘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세계 곳곳에서 생기는데 바로 자살(스트랜딩)하는 일이다.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 강력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 원인으로 환경오염과 초음파 탐지기, 포경활동들을 지목하는데 이 모든 가능성에는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심장생중 하나인 학은 40년 이상을 살지만 최근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 될 만큼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면 분명 수명도 마리수도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동물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비관적이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인간이 수명을 늘려가는 사이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경제 강연을 들어보면 너무나 '솔개 이야기'를 한다. 뭐 솔개가 40년을 살면 혼자 은신하여 다리와 부리를 빼고 새로 갈아 다시 40년을 더 산다나?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야 산다.'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비유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말로 솔개가 그런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토하나 안 달고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 한다. 솔개같은 맹금류는 발톱이나 부리가 우리 손톱처럼 케라틴이어서 매일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낭설들을 퍼뜨리기 이전에 솔개가 40년까지라도 그리고 직장인은 최소한 정년까지 만이라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이나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물들만 쫓 살피 보와도 역시 수명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절박한 생존의 환경 즉 전쟁 같은 일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급격히 깎아내리기도 한다. 세계대전시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으며, 구한말 선조들이 수명 또한 40세를 넘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최빈국의 평균수명은 40세 전후이며,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도 수명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단순히 의료의 질이나 기술의 발전만으로 증가하진 않는다.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여야만 비로소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만하면 미래의 후손들은 우리의 두 배의 수명을 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엿보인다. 다만 그 가능성에 다가가려면, 우선 세계를 평화로운 에덴동산(에덴시절에는 공룡도 200년 넘게 살았단다.)처럼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 '노아의 방주'처럼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